

# 호우 피해 최소화 대응 총력 근로 장애인 작업환경 '우수'

## 무주군, 점검반 구성 지반약화 피해우려지역 집중점검 나서

전국적으로 장마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이 지반약화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

무주군은 산업건설국 산하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점검반(안전재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환경과)을 구성했으며 오는 21일까지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의 급경사지와 산사태위험지역, 하천변, 그리고 주요 도로사면 등 총 18곳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호우 피해우려지역 집중점검 모습(설천면 나림마을)

점검반은 지난 주말 내린 비로 인해 '땅 밀립' 현상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등산로 등 산림지역에 대해서는 드론을 이용해 예찰을 진행 중이다. 옹벽과 배수로 시설의 이상 유·무 또한 확인하고 있다.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조치할 계획이며 지반약화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일의 상황에 적극 대비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산업건설국 이종현 국장은 "무주군에서는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저온창고 지붕유실과 토사유출, 배수로 범람, 도로 위 나무 쓰러짐 등 총 51건의 피해가 발생을 했다"며 "즉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정비와 인력을

투입해 복구를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 안전과 편의에 이상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분간 비 예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와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주말(14~16일) 평균 187mm의 비가 내리며 호우 주의보와 경보가 연이어 발령됐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을 군청과 읍·면행정복지센터 전체가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단계별 상황관리와 점검, 홍보, 피해 조치에 주력했다.

이에 앞서 6월 16일부터는 재해예방사업장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재해위험 및 재해우려지역 총 6백여 곳에 대한 위험요소 점검을 진행해 오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상황판단회의 갖고 대응 대책 등 논의... 피해 복구 신속 처리

장수군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2차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13일부터 장수군 재난안전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해왔으며,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호우특보가 호우경보로 상향됨에 따라 송주읍 부군수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변경·가동해 운영 중이다.

이날 상황판단회의에서는 피해 상황과 호우 전망을 공유하고 각 부서별 호우 피해 조치상황, 대응 대책 마련, 향후 대처 계획 등을 논의했다.

현재 장수군에는 13일부터 17일 오전 7시까지 303.5mm의 비가 내렸으며, 18일까지 전북 지역에 100~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처리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은 행정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도로침수, 토사유



집중호우 피해복구 모습

실, 수목전도, 산사태 유실 등의 시설 피해는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 시설에 대한 복구도 즉시 완료한 상태다.

군은 앞으로도 피해 발생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계를 계속 유지하며 재해취약지역 예찰강화 및 피해 상황을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군, 반디누리작업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받아

무주군은 반디누리작업장(원장 남궁용)이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으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 모든 이용자가 개별 시설과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부터 설계, 시공, 준공단계를 모두 평가하는 것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무주반디누리작업장은 매개시설을 비롯해 내부시설과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의 지표 항목이 100분의 80이상을 충족해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당 인증의 효력은 향후

10년간 지속된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이은주 과장은 "근로 장애인들의 작업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신축을 했기 때문에 근로여건은 좋아지고 작업민족도 또한 크게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다른 시설들도 살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내 장애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로, 연면적 523.20㎡,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 두부가공실과 콩나물 재배실, 2층에는 사무실과 상담실, 휴게 공간, 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마을만들기사업 3단계 선정평가 실시

장수군은 지난 13일 2023년 장수군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 선정평가를 시행했다.

마을만들기사업(3단계-자율개발)은 마을주민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마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수군과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사단법인 장수지역활력센터는 마을 활성화를 위해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고유의 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평가는 장수군 마을만들기사업 0단계 마을 지원조사, 1단계 생생마을, 2단계 장수마을 조성사업을 모두 이수한 번암면 금천마을 외 3개소 마

일의 사업추진 성과와 공동체의 활성화, 주민 현황포럼(마을회의)을 통해 작성한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마을 대표자가 발표하는 대면 평가 방식으로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으며, 7월 중 최종 선정마을을 발표할 계획이다.

군은 선정된 마을 개소당 사업비 5억 원을 3년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며, 마을 주민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승인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마을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7개 기관과 인구늘리기 4차 협약

진안군(군수 전준성)은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관내 7개 기관과 '진안에(愛) 주소갓기 민간공동체'를 실천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은 지역 간 인구 불균형에 따른 지방소멸 우려 심화로 인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공동대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에 참가한 기관은 농협진안군지부, 전북인산농협조합, 무진장축협조합, 진안군산림조합, 진안농협조합, 백운농협조합, 부귀농협조합 등이다.

전준성 군수는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 유입은 많은 지자



체들이 안고 있는 과제"라며 "관내 기관·단체들과 지속적인 협약 체계를 통해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진안군은 산불 초기 대응 및 화재 발생 초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이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산림인접마을 17개소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비상소화장치란 초기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관계자나 인근 지역주민, 의용소방대원이 초기 화재를 손쉽게 진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 장치함에 소방호스, 소화전 등으로 구성되어 설치되는 장비이다.

진안군은 시범적으로 부귀면 진상마을 등 17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진안소방서 주관으로 사용방법 등에 대한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인근 지역주민과 이장·의용소방대원 등을 관리자로 지정해 주민 누구나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조치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이 매우 빠르게 이뤄져, 대형산불로 인한 산림인접마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로컬푸드 판매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결과 안전

진안군이 여름철 동안 판매되는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여름철 장마 등 고온다습한 기후로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사용량이 늘어 농작물에 잔류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잔류농약 분석으로 부적합 농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는 현재 진안로컬푸드 직매장(전주 호성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름철 주요 농산물과 판매를 위해 납품하고 있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의 검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인 품목은 복숭아, 상추 등 9점이었으며, 불검출된 품목은 옥수수, 열무, 호박잎 등 7점으로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없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